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 비교*

장지연
명지대학교

ARTICLE INFO

Received: 01 August 2022
Revised: 24 August 2022
Accepted: 02 September 2022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Tertiary**

KEYWORDS

CSAT/
English section/
reading passages/
text types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읽기 지문/
텍스트 유형

ABSTRACT

Chang, Ji-Yeon. (2022). A comparison of the text types of the 2013-2022 CSAT English reading passages. *Modern English Education*, 23(3), 10-23.

As a follow-up study to J. Y. Chang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ext types of 250 English reading passages in the 2013-2022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CSAT) based on Biber's (1989) typology. The computer software Multidimensional Analysis Tagger (MAT, Version 1.3.2) (Nini, 2019) was applied to identify the text type of each passage with its dimension scores. Text types were then compared between the norm-referenced (2013-2017) and criterion-referenced (2018-2022) assessment periods. Results show that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text type was *involved persuasion* followed by *general narrative exposition*, *scientific exposition*, and *learned exposition*. In particular, *involved persuasion*, *scientific exposition*, and *learned exposition* together accounted for 64% of the total reading passages. Between the two assessment period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distribution of the text types. However, the proportions of *scientific exposition*, *involved persuasion*, and *learned exposition* increased in the latter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was a tendency in the CSAT English reading passages to reflect the text types that students experience at college and measure their preparedness as college students.

I. 서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하 수능 영어)은 국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어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수능 영어의 난이도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인 읽기 혹은 듣기 지문을 분석하거나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다(J. Y. Chang, 2018, 2019a, 2019b, 2022; J. Kim, 2017; G. H. Kim & K. W. Cha, 2021; N. Koh & J. A. Shin, 2017; J. H. Moon & H. D. Kim, 2017; Y. Shin, 2019). 그중에서 특히 J. Y. Chang(2022)은 기

존 연구들이 어휘나 문장구조와 같은 단편적인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춘 점을 지적하며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을 기반으로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을 상대평가 기간(2013-2017학년도)과 절대평가 기간(2018-2022학년도)으로 나누어 언어사용역(register)을 분석하고 비교했다.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은 총 6개의 차원(관여성-정보성, 서사성-비서사성, 명시성-상황 의존성, 설득성, 추상성-비추상성, 실시간 정보 정교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텍스트의 언어사용역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Al-Surmi, 2012; Biber & Finegan, 2001; Conrad,

*본 연구의 일부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 KAFLE) 2019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2001; Crosthwaite, 2016; J. Kim & K. Kim, 2019; Liu & Xiao, 2022; Nini, 2019; K. Park & E. Hwang, 2019; K. Park & E. J. Kim, 2016, 2019; H. Yoon, 2012).

본 연구는 J. Y. Chang(2022)의 후속 연구로서 Biber(1989)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최근 10년 동안(2013-2022학년도) 치러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을 우선 파악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텍스트 분류 체계인 장르가 화자/저자의 텍스트 생성 목적과 텍스트가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한 분류 체계라면, Biber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는 텍스트에서 동시에 사용된 주요 언어 특성을 반영한 분류 체계이다. 즉, 장르가 텍스트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적 범주화라 한다면, Biber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는 텍스트 내부에서 사용된 언어로 텍스트를 분류하는 내적 범주화라 할 수 있다(Biber, 1989). Biber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에서 동일한 유형의 텍스트는 언어적으로 매우 유사하므로, Biber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면 장르와 상관없이 언어적 유사성을 지닌 텍스트를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ber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최근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학습자가 경험하는 텍스트 중 어떤 유형의 텍스트와 유사한지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을 상대평가 기간(2013-2017학년도)과 절대평가 기간(2018-2022학년도)으로 나누어 텍스트 유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최근 수능 영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절대평가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에서는 당해 시험에서 수험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결정된 등급이 대학 입시의 당락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등급을 결정하는 수험생의 성취 수준은 당해 시험의 난이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이전 연구들에서는 난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읽기 지문의 언어 형태를 절대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했다(J. Y. Chang, 2018, 2019a, 2019b; Y. Shin, 2019). 그런가 하면 J. Y. Chang(2022)은 절대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의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언어사용역 면에 얼마나 일관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J. Y. Chang(2022)의 연구가 지난 10년간 치러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차원 점수를 절대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을 절대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Biber(1989)의 연구가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 결과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J. Y. Chang(2022)의 다차원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텍스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J. Y. Chang(2022)과 비교하여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언어적 특징을 더욱 분명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Biber(1989)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

Biber(1988)는 언어사용역 변이를 연구하기 위해 23개의 장르에 해당하는 481개의 텍스트(부록 참고)에 대해 16개의 주요 문법 항목에 속한 67개의 대표 언어 특성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Biber는 확정된 6개의 요인에 해당하는 주요 언어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6개의 차원으로 해석했다. 우선 차원 1(Dimension 1, D1)은 관여성-정보성(Involved vs. informational production)으로 텍스트가 생성된 목적과 상황을 시사하며, 차원 2(D2)는 텍스트의 서사성-비서사성(Narrative vs. non-narrative concern)의 정도를 가리킨다. 차원 3(D3)은 명시성-상황 의존성(Explicit vs. situated-dependent reference)으로 텍스트의 저자가 지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지 아니면 맥락에 의존하여 지칭하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이다. 차원 4(D4)와 차원 5(D5)는 각각 텍스트가 지닌 설득성(Overt expression of persuasion)과 추상성-비추상성(Abstract vs. non-abstract information)의 정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차원 6(D6)인 실시간 정보 교성(On-line informational elaboration)은 텍스트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얼마나 큰지 알려준다.

후속 연구에서 Biber(1989)는 다차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유형의 분류 체계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체계는 장르(genre)이다. 그러나 장르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를 토대로 하는 분류 체계라기보다 화자/저자의 텍스트 생성 목적과 텍스트가 사용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분류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장르로 분류된 텍스트라 하더라도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장르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외부에서 가해지는 범주화이기 때문이다. 반면 Biber는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의 체계성을 바탕으로 내적 범주화를 시도했으며, 이를 위해 다차원 분석 결과(Biber, 1988)를 사용했다. 즉, Biber는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고, 이 분류 체계에 따르면 동일한 유형의 텍스트는 언어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동일한 유형이 아닌 텍스트는 언어적으로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 유형(text type)을 분류하기 위해 Biber는 중요도가 가장 높은 다섯 차원(차원 1-5)의 요인 점수를 사용하여 481개의 텍스트에 대해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유사한 차원 점수를 지닌 텍스트들이 모여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고, 총 8개의 군집이 생성되었다(표 1, 그림 1). 참고로 Biber는 군집 중심과의 거리가 10 이하인 텍스트를 중심부 텍스트(core texts)로, 10 초과인 텍스트를 주변부 텍스트(peripheral texts)로 규정했다. 즉, 군집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텍스트는 해당 군집, 즉 해당 텍스트 유형의 대표적인 언어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Biber's (1989) Classification of Text Types

Text types	Genres	Number of texts			%
		Core	Peripheral	Total	
C1 Intimate interpersonal interaction	Face-to-face conversations, telephone conversations between personal friends	22	1	23	4.78
C2 Informational interaction	Interviews, business telephone conversations, face-to-face conversations in professional contexts	49	24	73	15.18
C3 Scientific exposition	Academic prose texts (natural science, engineering/technology, medicine), official documents	28	15	43	8.94
C4 Learned exposition	Academic prose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education, law), press reportage, official documents, press reviews, popular lore, biographies, hobbies, religion	53	18	71	14.76
C5 Imaginative narrative	Fiction	47	13	60	12.47
C6 General narrative exposition	Press reportage, press editorials, general fiction, biographies, humor, press reviews, academic prose, religion	117	33	150	31.19
C7 Situated reportage	Sports broadcasts	7	5	12	2.49
C8 Involved persuasion	Interviews, the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disparates; spontaneous speeches, prepared speeches; popular lore, professional letters, religion, humor, editorials	22	27	49	10.19
Total		345	136	4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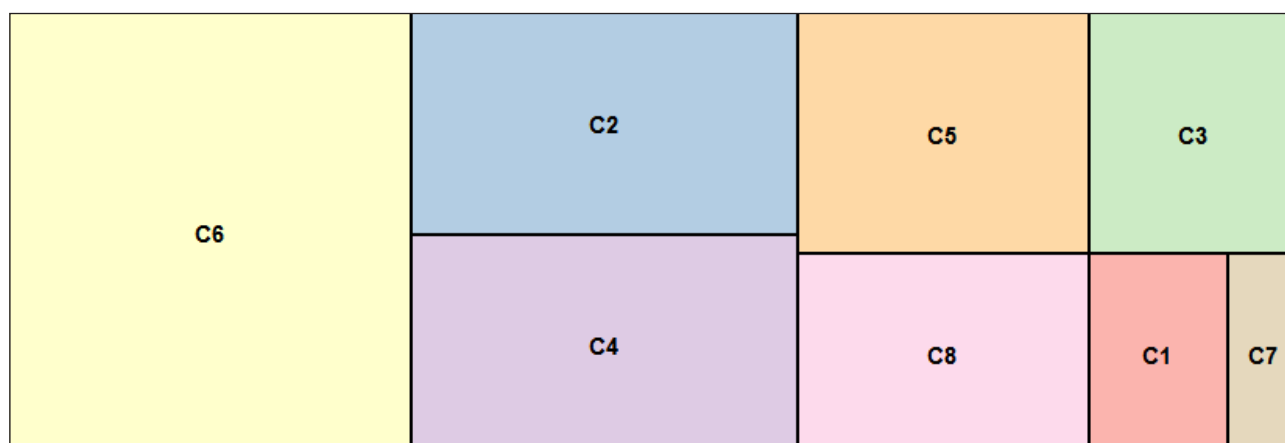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 of Text Types in Biber's (1989) Corpora

우선 군집 1(Cluster 1(C1): 친밀한 대인관계 상호작용 (Intimate interpersonal interaction))과 군집 2(C2: 정보 전달 상호작용(Informational interaction))는 차원 2, 차원 3, 차원 4, 차원 5에서 점수가 유사했다. 즉, 두 군집 모두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었으며(D4), 상황에 의존하여 대상을 지칭하는 경향을 지녔다(D3). 따라서 두 군집 모두 화자 근처에 있

는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담화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군집은 차원 1(관여성-정보성)에서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상호작용의 목적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 즉, 군집 1은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작용으로, 군집 2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령 군집 1에는 면대면 대화와 사적인 친구들 간의

전화 대화가, 군집 2에는 인터뷰, 비즈니스 전화 대화, 일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면대면 대화가 포함되었다.

군집 3(C3: 과학적 설명(Scientific exposition))과 군집 4(C4: 학습된 설명(Learned exposition))는 차원 1, 차원 2, 차원 3, 차원 4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두 군집 모두 정보를 제공하고(D1), 비서사적이며(D2), 지시 대상을 텍스트 안에서 명시적으로 지칭했으며(D3), 설득력은 없었다(D4). 두 군집의 차이는 차원 5(추상성-비추상성)에서 발견되었는데, 군집 3은 기술적인 내용을 추상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반면, 군집 4는 군집 3에 비해 덜 기술적인 내용을 덜 추상적인 문체로 전달했다. 장르를 살펴보면 군집 3에는 자연과학, 공학/기술, 의학 분야의 학술 산문이, 군집 4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 법 분야의 학술 산문이 포함되었다. 군집 3에서는 능동적 행위자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텍스트에 과학적 엄밀함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군집 4에서는 수동태 구문보다는 능동태 구문의 사용을 권장하는 영작문 교육의 영향이 각각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군집 5(C5: 상상적 서사(Imaginative narrative))는 맥락에 의존하여 지시 대상을 지칭했으며(D3), 문체 면에서 추상적이지 않고(D5), 정보성보다는 관여성에 약간 치우쳐 있었다(D1). 군집 5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적인 서사성에 있었으며(D2), 군집 5로 분류된 텍스트 중 대부분이 소설이었다.

군집 6(C6: 일반 서사적 설명(General narrative exposition))은 가장 많은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개 장르의 150개 텍스트(중심부 텍스트 117개, 주변부 텍스트 33개)가 포함되었다. 군집 6은 군집 3 및 군집 4와 마찬가지로 정보성이 높았지만(D1), 군집 5처럼 서사성 역시 높았다(D2). 즉,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지만 종종 이야기 서술 기법이 사용된 텍스트가 군집 6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7(C7: 상황 보도(Situated reportage))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을 지칭할 때 극도로 맥락에 의존(D3)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군집 7은 서사성(D2), 설득성(D4), 추상성(D5) 점수가 모두 낮았다. 즉, 비서사적이었으며, 청자/독자를 설득하려는 정도가 비교적 낮았고, 문체 면에서 볼 때 추상적이거나 기술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았다. 전체 481개의 텍스트 중 군집 7로 분류된 텍스트의 수가 가장 적었으며(12개), 장르 역시 주로 스포츠 중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스포츠 중계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연속해서 진행되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장르이다.

마지막 군집 8(C8: 관여된 설득(Involved persuasion))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군집 중 설득성(D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군집 8의 평균 차원 점수로 볼 때, 관여성(D1)과 명시성(D3)의 점수는 비교적 높았던 반면, 서사성(D2)과 추상성(D5)의 점수는 비교적 낮았다. 군집 8에는 기본적으로 화자/저자가 청자/독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D1), 화자/저자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청자/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는(D4) 텍스트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청자/독자를

설득하면서(D4)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D1) 텍스트 역시 군집 8의 주변부로 포함되었다.

Biber(1989)에 따르면 텍스트 유형의 개수(총 8개)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화자/저자가 비교적 제한된 언어 기능 및 언어 형태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생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텍스트 유형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Biber(1988)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변이(text variation)가 연속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텍스트가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해당 유형의 중심부에 비교적 근접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텍스트 분류 체계인 장르와 달리 텍스트 유형은 텍스트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주요 언어 특성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범주화하는 내적 분류 체계로서 장르와 더불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Biber(1988, 1989)의 다차원 분석 및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 기반 연구

텍스트를 분석할 때 시행하는 다차원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Sardinha et al., 2019). 첫 번째는 Biber(1988)의 연구에서처럼 주어진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언어 특성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요인 분석을 한 후, 각 요인을 구성하는 주요 언어 특성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고유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완전한 다차원 분석(a full multi-dimensional analysis, a full MDA)이다. 다른 방법은 주어진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언어 특성들의 정규화(normalization)된 빈도수를 대상으로 Biber(1988)의 분석 결과인 주요 언어 특성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실시한 후, 기존 차원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산적 다차원 분석(an additive multi-dimensional analysis, an additive MDA)으로 불린다. 완전한 다차원 분석이 언어사용역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가산적 다차원 분석은 주어진 텍스트가 기존 언어사용역과 얼마나 유사하고 다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Biber(1988)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행하는 가산적 다차원 분석은 텍스트를 비교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Al-Surmi, 2012; Biber & Finegan, 2001; J. Y. Chang, 2022; Conrad, 2001; Crosthwaite, 2016; J. Kim & K. Kim, 2019; Liu & Xiao, 2022; Nini, 2019; K. Park & E. Hwang, 2019; K. Park & E. J. Kim, 2016, 2019; H. Yoon, 2012).

우선 Conrad(2001)는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을 사용하여 동일한 학술 산문이라도 분야에 따라 그리고 독자 및 목적에 따라 언어사용역이 다를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가장 대조적인 분야로 간주되는 생물학과 역사를 비교하기 위해 Conrad는 생물학 중 생태학 분야에서, 역사학 중 미국 역사 분야에서 각각 20개의 연구 논문과 9권의

대학 교재를 일부 추출하여 차원 점수를 분석했다. Conrad는 차원 1과 차원 2의 차이에 주목했는데, 가령 차원 1(관여성-정보성)에서는 두 분야의 대학 교재가 두 분야의 연구 논문보다 점수가 높았던 반면, 차원 2(서사성-비서사성)에서는 미국 역사 분야의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이 생태학 분야의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네 집단 모두 정보성(D1)을 지니지만, 대학 교재는 분야와 상관 없이 전공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더 많은 설명과 예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교재는 연구 논문보다 정보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네 집단 모두 비서사성(D2)을 지니지만, 미국 역사 분야의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은 아무래도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생태학 분야의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보다는 비서사성의 정도가 약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Biber와 Finegan(2001)은 동일한 연구 논문 안에서도 목적에 따라 부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발행된 의학 연구 논문을 서론(Introduction), 방법(Methods), 결과(Results), 논의(Discussion)로 나누어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을 가산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의학 연구 논문은 전반적으로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는 경향이 매우 컸으며(D1), 극도로 비서사적이었으며(D2), 지칭하는 대상을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논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으며(D3), 논쟁적이거나 설득적이지 않았으며(D4), 추상적이었으며(D5). 그러나 부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가령 논의 부분은 가장 높은 정보성과 설득성을, 서론 부분은 가장 높은 비서사성과 명시성을, 방법 부분은 가장 높은 추상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Biber와 Finegan은 또한 미국의 학 연구 논문과 영국 의학 연구 논문이 차원 1과 차원 5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즉, 미국 논문은 영국 논문에 비해 정보를 집약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다 컸던 반면, 영국 논문은 미국 논문에 비해 더 추상적이었다. Biber와 Finegan은 이러한 차이가 미국과 영국 간 문자 언어사용역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했다.

앞서 소개한 두 연구와 다르게 Liu와 Xiao(2022)는 연구 논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과 더불어 Biber(1989)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도 함께 사용했다. Liu와 Xiao는 특히 연구 논문 중 결론 부분을 학문 분야에 따라 비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응용언어학, 사회학, 교육학을,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세포생물학, 공학, 물리학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논문에서 결론 부분만을 추출하여 가산적 다차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차원 1(관여성-정보성), 차원 2(서사성), 차원 4(설득성)에서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가령 두 분야 모두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려는 경향이 컸지만, 자연과학이 사회과학보다 정보성의 점

수가 좀 더 높았다. 반면 두 분야 모두 서사성의 점수가 낮았지만, 사회과학이 자연과학보다 서사성의 점수가 좀 더 높았다. 또한 두 분야 모두 설득성의 점수가 낮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보다 설득성의 점수가 좀 더 높았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차원 3(명시성-상황 의존성)과 차원 5(추상성)에서 두 분야는 모두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의존하여 대상을 지칭하기보다 관계절 및 명사화 등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접속사, 무행위자 수동태, 과거 분사절 등을 통해 개인과 관련 없는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 비록 사회과학 연구 논문의 결론 부분과 자연과학 연구 논문의 결론 부분은 차원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했으나 Biber(1989)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적용했을 때, 두 분야의 결론 부분은 모두 “학습된 설명(Learned exposition)(C4)”으로 분류되었다.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은 학술 산문뿐만 아니라 원어민과 비원어민 학습자의 영작문을 비교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가령 K. Park과 E. Hwang(2019)은 가산적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여 원어민의 영작문(LOCNESS 일부)과 한국 예비 대학생의 영작문(881편)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원 1과 차원 4를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비원어민의 영작문은 원어민의 영작문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두 영작문 집단 모두 약간의 비서사적인 성향을 띠었으며(차원 2), 지칭 대상을 텍스트 안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했으며(차원 3), 다소 추상적이었으며(차원 5). 다만 비원어민의 영작문은 원어민의 영작문에 비해 관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차원 1),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주제(“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을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이나 전화 대화 정도의 낮은 설득성을 보여주었다(차원 4). K. Park과 E. Hwang은 이러한 차이를 두고 한국 예비 대학생이 아직은 비격식적인 구어 장르에 근접한 영작문을 작성한다고 판단했다.

J. Kim과 K. Kim(2019) 역시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을 가산적으로 적용하여 원어민 200명과 비원어민 대학생 2600명이 작성한 영작문을 비교했다. International Corpus Network of Asian Learners of English(ICNALE)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중요성”의 주제로 작성된 영작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으며, 비원어민 학생들이 작성한 영작문은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중고급, 고급으로 분류했다. 이전 연구들과 다르게 J. Kim과 K. Kim은 영작문의 차원 점수를 비교하는 대신 영작문의 텍스트 유형을 비교했다. 단, Biber(1989)의 8개 군집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러티브, 대화문, 설득문, 학문적 텍스트로 재분류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어민의 영작문과 비원어민의 영작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텍스트 유형은 설득문이었다. 다만 비원어민의 영작문에서는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라 텍스트 유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가령 고급 집단의 영작문에서는 설득문 다음으로 학문적 텍스트가 많이 사용된 데 반해, 초급, 중

급, 중고급 집단의 영작문에서는 설득문 다음으로 대화문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대화문과 학문적 텍스트의 분포 차이를 비교했을 때, 대화문은 초급과 중급 집단의 영작문에서, 학문적 텍스트는 중고급과 고급 집단의 영작문에서 기대값보다 더 많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J. Kim과 K. Kim은 학습자의 영어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글쓰기 방식 역시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바뀌게 되며, 구사하게 되는 텍스트 유형 역시 변화한다고 보았다.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어휘나 구문과 같은 단편적인 언어 특성에 의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J. Y. Chang(2022)은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을 기반으로 절대평가 도입 전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차원 점수를 비교했다. 2013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의 차원 점수에 따르면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은 우선 명사, 전치사, 한정 형용사 등이 동시에 많이 사용된 텍스트로서, 저자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가 아닌 독자에게 정보를 집약해서 전달하는 텍스트로 나타났다(D1), 반면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는 과거 시제 동사, 3인칭 대명사, 완료 동사 등이 동시에 많이 사용되지 않아 서사적인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D2). 또한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은 시간 부사어구, 장소 부사어구, 부사를 통해 주변 상황에 의존하여 대상을 지칭하기보다 주어 및 목적어 위치의 WH-관계절과 명사화 등을 통해 지칭하는 대상을 텍스트 안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D3). 차원 4(설득성)와 차원 5(추상성 대 비추상성)의 점수로 볼 때,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은 부정사, 예측 범 조동사, 설득 동사 등이 동시에 많이 사용되지 않아 독자를 설득하려는 텍스트는 아니었던 반면, 접속사, 무행위자 수동태, 과거 분사절 등이 동시에 많이 사용된 추상적인 텍스트로 나타났다. 상대평가 기간과 절대평가 기간의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은 차원 3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절대평가 기간이 상대평가 기간보다 명시성의 점수가 좀 더 높았다.

본 연구는 J. Y. Chang(2022)의 후속 연구로서 J. Y. Chang(2022)의 다차원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Biber(1989)의 분류 체계에 따라 최근 10년간 치러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을 우선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을 상대평가 기간(2013-2017학년도)과 절대평가 기간(2018-2022학년도)으로 나누어 텍스트 유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J. Y. Chang(2022)의 연구가 절대평가 도입 전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을 차원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비교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차원 1부터 차원 5까지의 점수를 총체적으로 반영한 분류 체계인 텍스트 유형(Biber, 1989)을 통해 절대평가 도입 전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J. Kim과 K. Kim(2019)의 연구에서처럼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직관적이며 흥미로운 비교를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은 어떤 텍스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 상대평가 기간과 절대평가 기간의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은 텍스트 유형의 분포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 방법

1. 코퍼스 구축

J. Y. Chang(2022)의 후속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코퍼스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코퍼스와 동일하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코퍼스는 2013학년도(2012년 실시)부터 2022학년도(2021년 실시)까지 실시된 수능 시험의 영어 영역 읽기 지문으로 구축되었다.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http://www.suneung.re.kr>)에서 내려받은 수능 영어 기출문제(홀수형)에서 추출하여 ANSI로 인코딩된 텍스트 파일(TXT)로 저장되었다. 2014학년도는 기존 수능 영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B형을 선택했다. 각 지문의 텍스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파일은 지문별로 생성되었으며, 총 250개의 파일이 생성되었다(표 2).

TABLE 2
Overview of the Corpus

Assessment	Academic years (Type)	Number of passages	Number of tokens
NRA	2013	30	4467
	2014 (B)	20	3530
	2015	25	3801
	2016	25	3989
	2017	25	4066
	Sub-total	125	19853
CRA	2018	25	4163
	2019	25	3997
	2020	25	4077
	2021	25	4027
	2022	25	4065
	Sub-total	125	20329
Total		250	40182

Note. NRA: norm-referenced assessment; CRA: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본 연구에서는 읽기 지문을 온전한 텍스트로 분석하기 위해 수능 영어 정답지를 참고하여 읽기 지문에 몇 가지 수정을 가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선택지, 표 및 그림, 읽기 지문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예: 2022학년도 40번 문제 요약문)은 읽기 지문에서 배제했다. 다음으로 내용과 관련 없는 번호

및 기호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읽기 지문에서 삭제했다. 반면 읽기 지문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 주어진 문장을 추가했고, 읽기 지문의 빈칸에는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추가했다. 그리고 읽기 지문의 내용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순서에 맞게 내용을 배열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한 것으로 교체했다. 가령 읽기 지문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유니코드 포맷 문자는 최대한 유사한 기호로, 영어가 아닌 기타 외국어 알파벳(예: é)은 최대한 유사한 알파벳으로 교체했다(예: e). 또한 어법 상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한 것으로 교체했다.

2. 코퍼스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Multidimensional Analysis Tagger(MAT, Version 1.3.2)(Nini, 2019)를 사용했다. MAT는 Biber(1988)의 언어사용역 분석을 다른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료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MAT는 우선 the Stanford Tagger(Toutanova et al., 2003)를 사용하여 입력된 텍스트의 모든 품사(parts of speech)를 태깅한다. 그리고 Biber(1988)의 다차원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해당 텍스트의 차원 점수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MAT에서는 차원 점수를 기반으로 Biber(1989)의 분류 체계에 따라 해당 텍스트의 가장 근접한 텍스트 유형을 제시한다. J. Y. Chang(2022)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역시 Biber(1988)의 연구에 근접하고자 z 점수 수정(Z-score correction)은 하지 않았으며, Biber(1988)의 연구에서 사용된 태그(VASW tags)를 분석에 사용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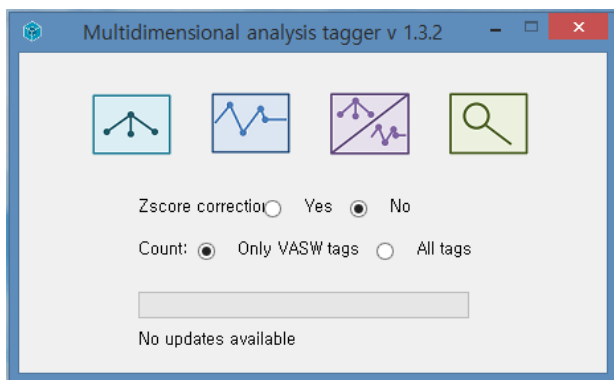


FIGURE 2 Setting of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Tagger (Version 1.3.2)

본 연구에서는 각 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어떤 텍스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유형 분석을 학년도별 읽기 지문 전체가 아닌 각각의 지문별로 실시했다. 총 250개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을 파악한 후, 학

년도별 텍스트 유형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했다. 마지막으로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을 상대평가가 적용된 시기(2013-2017학년도)와 절대평가가 적용된 시기(2018-2022학년도)로 나누어 비교했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절대평가 도입 전후 두 집단의 군집(텍스트 유형) 분포가 동일하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해야 하나, 샘플 수가 적어 정확한 p 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유의수준 5%($\alpha = 0.05$)에서 양측(two-sided) 검정으로 실시했다. 통계 분석에는 R(Version 4.1.2)이 사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 구성

표 3과 그림 3은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어떤 텍스트 유형으로 구성되었는지 보여준다. 우선 해당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 텍스트 유형은 “관여된 설득(C8)”이었다. 즉, 저자가 독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거나 독자를 설득하는 혹은 독자를 설득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81편, 32.40%). 반면 Biber(1989)의 연구에서 “관여된 설득(C8)”은 총 8개의 텍스트 유형 중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된 유형이었으며(49편, 10.19%), “학습된 설명(C4)”과 “상상적 서사(C5)”보다도 그 비율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 “관여된 설득(C8)”은 2013, 2017, 2022학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텍스트 유형이었다(그림 4).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된 텍스트 유형은 이야기 서술 기법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정보 전달 설명문인 “일반 서사적 설명(C6)”이었다(69편, 27.60%). “일반 서사적 설명(C6)”은 “관여된 설득(C8)”과 달리 Biber(1989)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텍스트 유형이었다(150편, 31.19%). “일반 서사적 설명(C6)”은 2013, 2017, 2022학년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고, 2014학년도에는 “관여된 설득(C8)”과 동일한 비율로 등장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된 텍스트 유형은 각각 과학, 공학, 의학 분야 학술 산문을 포함하는 “과학적 설명(C3)”(57편, 22.80%)과 인문 사회 분야 학술 산문을 포함하는 “학습된 설명(C4)”(22편, 8.80%)이었다. 2015-2016학년도 제외된 나머지 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서 “과학적 설명(C3)”은 “학습된 설명(C4)”보다 1.5배에서 7배까지 더 많이 등장했으며, 심지어 2014학년도(B형)와 2017학년도에는 “학습된 설명(C4)”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2015-2016학년도에만 “학습된 설명(C4)”이 “과학적 설명(C3)”

TABLE 3
Text Types of 2013-2022 CSAT English Reading Passages

Academic years	Text types								Total
	C2	C3	C4	C5	C6	C7	C8		
2013	N	1	7	1	4	11	0	6	30
	%	3.33	23.33	3.33	13.33	36.67	0.00	20.00	100.00
2014B	N	1	3	0	0	8	0	8	20
	%	5.00	15.00	0.00	0.00	40.00	0.00	40.00	100.00
2015	N	0	4	4	2	6	0	9	25
	%	0.00	16.00	16.00	8.00	24.00	0.00	36.00	100.00
2016	N	2	5	5	0	5	1	7	25
	%	8.00	20.00	20.00	0.00	20.00	4.00	28.00	100.00
2017	N	1	4	0	1	11	0	8	25
	%	4.00	16.00	0.00	4.00	44.00	0.00	32.00	100.00
2018	N	1	6	4	0	5	0	9	25
	%	4.00	24.00	16.00	0.00	20.00	0.00	36.00	100.00
2019	N	0	7	3	2	5	0	8	25
	%	0.00	28.00	12.00	8.00	20.00	0.00	32.00	100.00
2020	N	0	8	3	1	4	0	9	25
	%	0.00	32.00	12.00	4.00	16.00	0.00	36.00	100.00
2021	N	0	6	1	2	5	0	11	25
	%	0.00	24.00	4.00	8.00	20.00	0.00	44.00	100.00
2022	N	0	7	1	2	9	0	6	25
	%	0.00	28.00	4.00	8.00	36.00	0.00	24.00	100.00
Total	N	6	57	22	14	69	1	81	250
	%	2.40	22.80	8.80	5.60	27.60	0.40	32.40	100.00

Note. C2: Informational interaction; C3: Scientific exposition; C4: Learned exposition; C5: Imaginative narrative; C6: General narrative exposition; C7: Situated reportage; C8: Involved persua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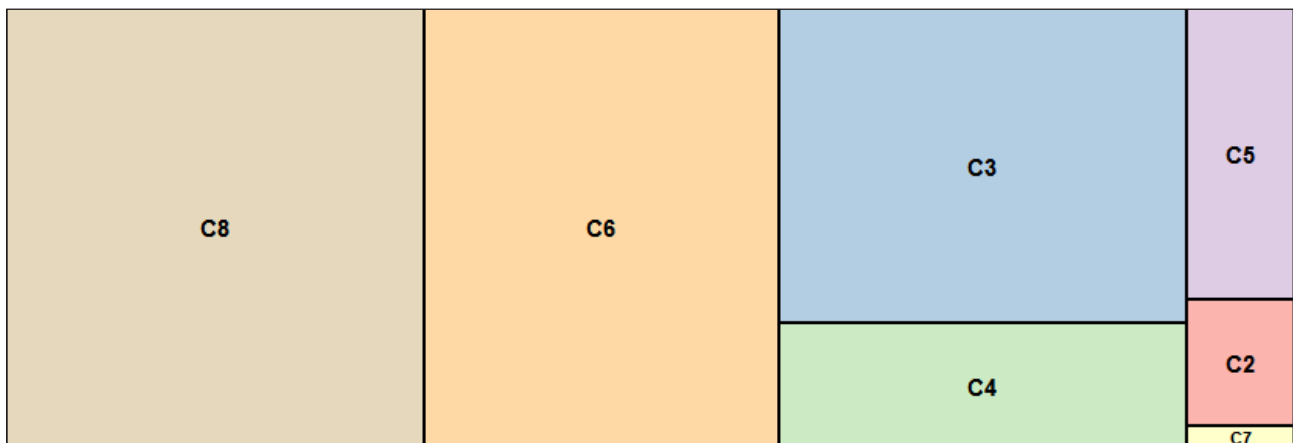


FIGURE 3 Distribution of Text Types in 2013-2022 CSAT English Reading Passages

과 동일한 비율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Biber(1989)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학습된 설명(C4)”(71편, 14.76%)이 “과학적 설명(C3)”(43편, 8.94%)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설을 포함하는 “상상적 서사(C5)”가 본 연구에서는 다섯 번째로 빈번하게 사용된 텍스트 유형이었다(14편, 5.60%). “상상적 서사(C5)”는 2013학년도에만 4편이 등

장했을 뿐, 나머지 학년도에서는 기껏해야 1-2편이 등장했다. 그리고 2014학년도(B형), 2016학년도, 2018학년도에는 그마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와 달리 Biber(1989)의 연구에서 “상상적 서사(C5)”는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된 텍스트 유형이었는데(60편, 12.47%), 아무래도 Biber가 사용한 코퍼스에 일반 소설, 미스터리 소설, 공상과학 소설, 어드벤처 소설, 로맨스 소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 비율이 비교

적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사용된 혹은 세 번째로 적게 사용된 텍스트 유형은 “정보 전달 상호작용(C2)”이었다(6편, 2.40%). 본 연구가 수능 영어의 읽기 지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인터뷰, 비즈니스 전화 대화, 일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면대면 대화를 포함하는 텍스트 유형인 “정보 전달 상호작용(C2)”은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문어 코퍼스뿐만 아니라 구어 코퍼스까지 분석한 Biber(1989)의 연구에서는 “정보 전달 상호작용(C2)”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텍스트 유형이었다(73편, 15.18%). 마찬가지로 이유로 면대면 대화, 사적인 친구들 간의 전화 대화를 포함하는 텍스트 유형인 “친밀한 대인관계 상호작용(C1)”은 Biber(1989)의 연구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사용된 혹은 두 번째로 적게 사용된 텍스트 유형이었으나(23편, 4.78%), 본 연구에서는 아예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중계와 같이 대상을 맥락에 의존하여 지칭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상황 보도(C7)”는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2016학년도에만 1편(0.40%)이 발견되었다(2016학년도 19번 지문). Biber(1989)의 연구에서도 “상황 보도(C7)”는 가장 덜 사용된 텍스트 유형이었다(12편, 2.49%).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텍스트 유형은 “관여된 설득(C8)”, “일반 서사적 설명(C6)”, “과학적 설명(C3)”이었다. 하지만 이공 계열 분야의 학술 산문을 포함하는 “과학적 설명(C3)”과 인문 사회 계열 분야의 학술 산문을 포함하는 “학습된 설명(C4)”을 하나로 묶으면 총 79편(31.6%)으로 “일반 서사적 설명(C6)”을 넘어 “관여된 설득(C8)”에 맞먹는 비율이 된다. 결국 “관여된 설득(C8)”, “과학적 설명(C3)”, “학습된 설명(C4)”이 전체 지문의 64%(160편)를 차지한다는 결과는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 논설문과 학술문과 같은 텍스트가 그만큼 선호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Biber(1989)의 연구와 달리 “과학적 설명(C3)”이 “학습된 설명(C4)”보다 2배

넘게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서는 이공 계열 학술 산문과 같이 능동적 행위자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텍스트에 과학적 엄밀함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큰 학술 산문이 더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어 코퍼스와 구어 코퍼스를 모두 분석했던 Biber(1989)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구어 장르가 포함된 “친밀한 대인관계 상호작용(C1)”과 “정보 전달 상호작용(C2)”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소설 장르가 포함된 “상상적 서사(C5)”가 비교적 적게 발견되었다. Biber(1988, 1989)의 연구가 다양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축된 코퍼스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들은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텍스트를 반영했다기보다 전공 혹은 교양 교재 등을 통해 대학에서 경험하게 될 문자 언어 텍스트에 좀 더 근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절대평가 도입 전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 비교

본 연구에서는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을 절대평가 도입 전인 2013-2017학년도와 절대평가 도입 후인 2018-2022학년도로 나누어 텍스트 유형을 비교해보았다(표 4, 그림 5). 우선 상대평가 기간에 가장 많이 발견된 텍스트 유형은 “일반 서사적 설명(C6)”, “관여된 설득(C8)”, “과학적 설명(C3)”, “학습된 설명(C4)”, “상상적 서사(C5)”, “정보 전달 상호작용(C2)”, “상황 보도(C7)” 순이었다(그림 6). 반면 절대평가 기간에 가장 많이 발견된 텍스트 유형은 “관여된 설득(C8)”, “과학적 설명(C3)”, “일반 서사적 설명(C6)”, “학습된 설명(C4)”, “상상적 서사(C5)”, “정보 전달 상호작용(C2)” 순이었다(그림 7).

상대평가 기간과 비교해 절대평가 기간에 눈에 띄게 비율이 높아진 텍스트 유형은 “과학적 설명(C3)”으로 무려 11편(8.80%)이 증가했다. 또한 “관여된 설득(C8)”과 “학습된 설명(C4)”도 각각 5편(4.00%)과 2편(1.60%)이 증가했다.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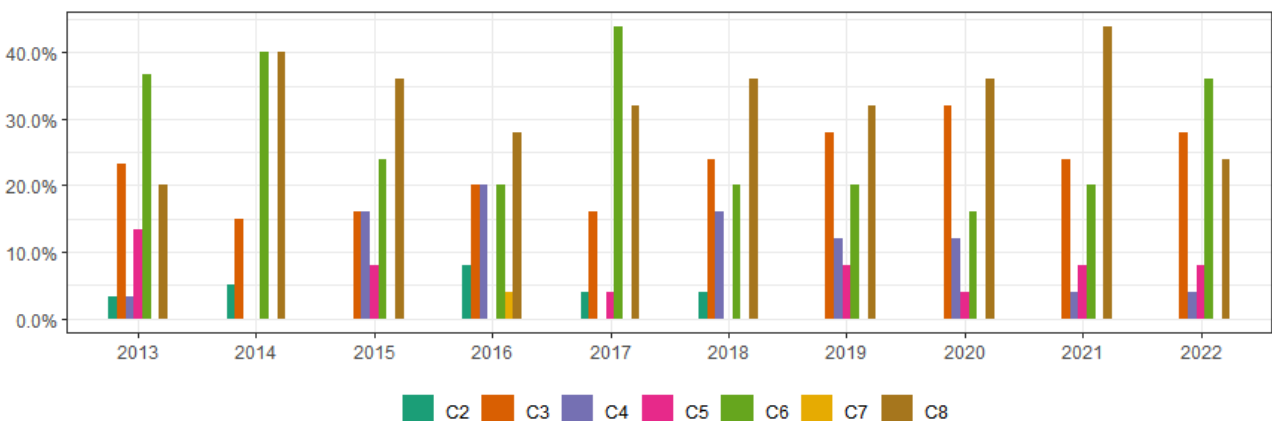


FIGURE 4 Comparison of Text Types in 2013-2022 CSAT English Reading Passages

면 비율이 비교적 낮아진 텍스트 유형은 “일반 서사적 설명 (C6)”과 “정보 전달 상호작용(C2)”으로 각각 13편(10.40%)과 4편(3.20%)이 감소했다. 절대평가 기간에 “상황 보도 (C7)”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절대평가 기간의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 저자의 의견이 드러나는 논설문 뿐만 아니라 과학 및 공학과 같은 전문 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추상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학술문의 비중이 특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학술문이나 논설문이 대학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장르임을 고려한다면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이전 기간보다 대학에서의 영어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

향이 보다 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평가 도입 전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서 텍스트 유형의 전반적인 분포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유의수준 5%($\alpha = 0.05$)에서 양측(two-sided) 검정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상대평가 집단과 절대평가 집단이 군집의 전반적인 분포 면에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p = 0.178$). 즉, 적어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서는 절대평가 도입과 상관없이 텍스트 유형의 전반적인 분포 면에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4
Comparison of Text Types Between NRA and CRA

Clusters	Text types		NRA	CRA	Difference (CRA-NRA)	<i>p</i>
C2	Informational interaction	<i>N</i>	5	1	-4	0.178
		%	4.00	0.80	-3.20	
C3	Scientific exposition	<i>N</i>	23	34	11	
		%	18.40	27.20	8.80	
C4	Learned exposition	<i>N</i>	10	12	2	
		%	8.00	9.60	1.60	
C5	Imaginative narrative	<i>N</i>	7	7	0	
		%	5.60	5.60	0.00	
C6	General narrative exposition	<i>N</i>	41	28	-13	
		%	32.80	22.40	-10.40	
C7	Situating reportage	<i>N</i>	1	0	-1	
		%	0.80	0	-0.80	
C8	Involved persuasion	<i>N</i>	38	43	5	
		%	30.40	34.40	4.00	
Total			125	125	0	
			100.00	100.00	0.00	

Note. NRA: norm-referenced assessment; CRA: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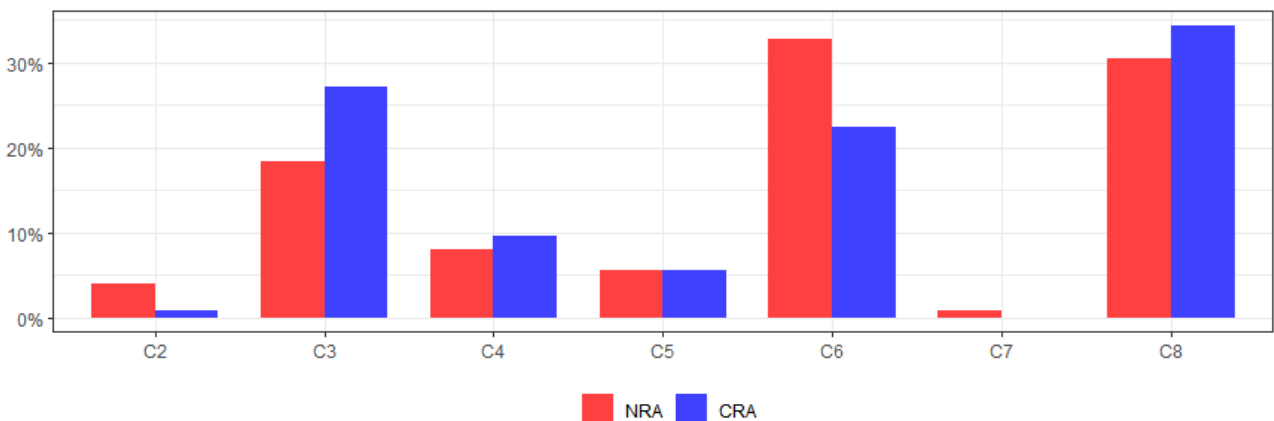


FIGURE 5 Comparison of Text Types Between NRA and C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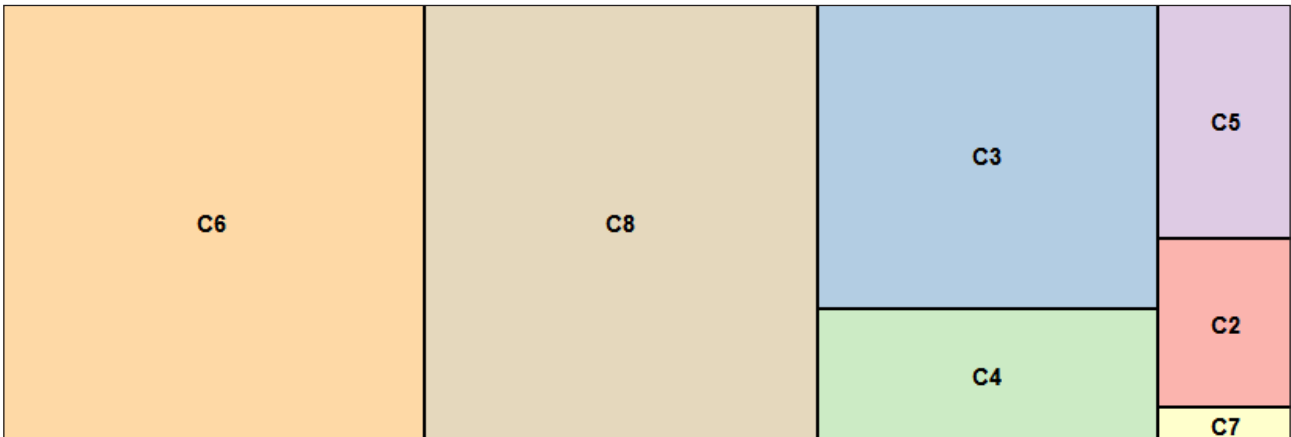


FIGURE 6 Distribution of Text Types in the NRA (2013-2017)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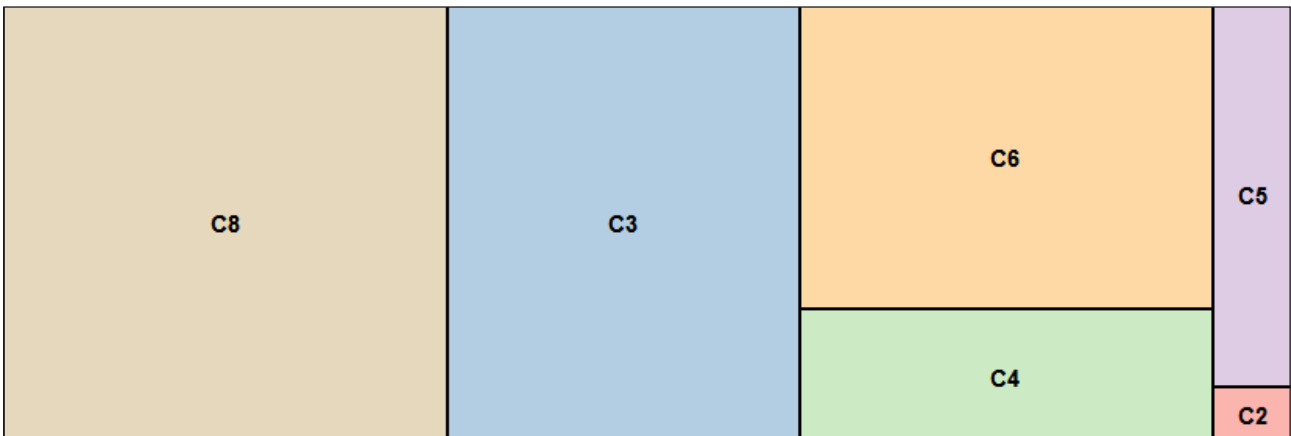


FIGURE 7 Distribution of Text Types in the CRA (2018-2022) Period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선 Biber(1989)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최근 10년간 치러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을 파악했다.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텍스트 유형은 “관여된 설득(C8)”, “일반 서사적 설명(C6)”, “과학적 설명(C3)”, “학습된 설명(C4)” 순이었으며, 그중에서 “관여된 설득(C8)”, “과학적 설명(C3)”, “학습된 설명(C4)”은 전체 지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Biber(1989)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관여된 설득(C8)”과 “과학적 설명(C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Biber(1989)가 사용한 코퍼스에는 다양한 구어 및 문어 장르가 포함되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퍼스에는 수능 영어의 읽기 지문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본 연구에는 듣기 지문이 제외되었으므로 “정보 전달 상호작용(C2)”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친밀한 대인관계 상호작용(C1)”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Biber(1989)의 연구와 비교하여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는 저자의 의견이 강하게 드러나거나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지문 그리고 과학 및 공학과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추상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지문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상상적 서사(C5)”는 문어 장르가 다수 포함된 텍스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Biber(1989)의 연구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이는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소설보다는 논설문이나 학술문처럼 대학에서 접하게 될 전공 및 교양 교재 등과 같은 텍스트에 좀 더 근접했으며, 적어도 읽기 지문만큼은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고자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3-2022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을 상대평가 기간과 절대평가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비록 전반적인 텍스트 유형의 분포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대평가 기간과 비교하여 절대평가 기간에는 “일반 서사적 설명(C6)”과 “정보 전달 상호작용(C2)”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과학적 설명(C3)”과 “관여된 설득(C8)”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학술문과 같이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글과 논설문과 같이 저자의 의견이 드러나거나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다 커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

서 선호하는 학술 산문은 인문 사회 계열의 학술 산문보다 이공 계열의 학술 산문으로 능동적 행위자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텍스트에 과학적 엄밀함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큰 학술 산문이었다. 결국 절대평가 도입 이후의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서는 대학에서 경험할 텍스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다 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 사용된 언어 형태를 절대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했다(J. Y. Chang, 2018, 2019a, 2019b; Y. Shin, 2019). 이 연구들에서 다룬 언어 형태는 어휘 복잡성이나 통사적 복잡성과 같이 읽기 지문의 난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절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J. Y. Chang(2022)은 개별적인 언어 형태가 아닌 글의 정보성, 서사성, 설득성, 추상성과 같은 언어사용역 면에서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J. Y. Chang(2022)의 후속 연구인 본 연구에서도 역시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텍스트 유형의 전반적인 분포 면에서 절대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J. Y. Chang(2022)과 본 연구에서 각각 분석한 언어사용역과 텍스트 유형은 읽기 지문의 언어 난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험생이 느끼는 읽기 지문의 친숙도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령 수험생은 자주 접했던 텍스트와 언어사용역 및 텍스트 유형이 비슷한 지문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문은 낯설게 느낄 수 있다. 텍스트 유형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소설 장르가 포함된 “상상적 서사(C5)” 유형의 텍스트를 주로 읽은 수험생은 이공 계열의 학술 산문에 포함된 “과학적 설명(C3)” 유형의 지문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iber(1989)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는 텍스트에서 사용된 언어로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유형의 텍스트는 언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J. Y. Chang(2022)과 같이 5개의 차원 점수로 텍스트를 비교하는 방식에 비해 읽기 지문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지문이 언어적으로 어떤 텍스트와 유사한지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Biber(1989)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는 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수능 영어 읽기 지문과 언어 사용 면에서 유사한 지문을 손쉽게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는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전공 및 교양 영문 교재와 언어적으로 유사한 영어 교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은 수능 영어 읽기 지문에, 대학생들은 전공 및 교양 영문 교재에 익숙해지고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외

적 범주화인 장르와 내적 범주화인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같이 사용하여 읽기 자료를 선정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은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J. Y. Chang, 2019a, 2019b, 2022; B. C. Lee, 2013). 우선 수능 영어는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필요한 영어 능력을 수험생이 어느 정도 지녔는지 평가한다. 또한 수능 영어의 출제 영역이 고등학교 영어 I, 영어II(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수능 영어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중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지 평가한다. 수능 영어가 두 목표를 각각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수험생이 대학에서 경험할 영문 텍스트와 영어 I 및 영어 II 교과서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국내 대학에서 사용되는 영문 교재의 텍스트 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축된 코퍼스 사용된 Biber(1989)의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비교적 학술문이나 논설문과 같이 고등 교육기관에서 접하게 되는 텍스트 유형에 근접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영어 I 및 영어 II 교과서의 읽기 본문을 분석하는 연구나 국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영어 읽기 자료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수능 영어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능 영어에서 듣기 지문을 제외한 읽기 지문의 텍스트 유형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구어와 문어는 서로 다른 독립된 의사소통 체계이므로(Biber, 1988),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를 위해서는 듣기 지문과 읽기 지문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는 편이 좋을 듯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수능 영어 듣기 지문의 언어사용역과 텍스트 유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REFERENCES

- Al-Surmi, M. (2012). Authenticity and TV show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perspective. *TESOL Quarterly*, 46(4), 671-694.
- Biber, D. (1988).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ber, D. (1989). A typology of English texts. *Linguistics*, 27(1), 3-43.
- Biber, D., & Finegan, E. (2001). Intra-textual variation within medical research articles. In S. Conrad & D. Biber (Eds.), *Variation in English: Multi-dimensional studies* (pp. 108-123). Routledge.
- Chang, Ji-Yeon. (2018). A comparison of 2017-2018 CSAT reading passages via Coh-Metrix: Focusing

- on descriptive, readability, and easibility measure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5(4), 81-106.
- Chang, Ji-Yeon. (2019a). A comparison of lexical complexity in 2016-2019 CSAT English reading passages by the types of assessment (norm-referenced assessment vs.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8(3), 85-110.
- Chang, Ji-Yeon. (2019b). A comparison of syntactic complexity in CSAT reading passage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8(2), 161-188.
- Chang, Ji-Yeon. (2022). A multi-dimensional comparison of CSAT English reading passages before and after the use of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Language Research*, 58(1), 61-89.
- Conrad, S. (2001). Variation among disciplinary texts: A comparison of textbooks and journal articles in biology and history. In S. Conrad & D. Biber (Eds.), *Variation in English: Multi-dimensional studies* (pp. 94-107). Routledge.
- Crosthwaite, P. (2016). A longitudinal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EAP writing: Determining EAP course effectivenes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22, 166-178.
- Kim, Ga-Hyeon, & Cha, Kyung-Whan. (2021). An analysis on the vocabulary of recent CSAT's English listening assessment: Lexical scales, word difficulty, and high frequency content words. *English Language Teaching*, 33(2), 23-36.
- Kim, Jeong-eun, & Kim, Keeho. (2019). Different-proficiency learners write L2 argumentative essays in different genres: A corpus-based research.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3(2), 109-136.
- Kim, Jeong-ryeol. (2017). A diachronic analysis of English KSAT reading passages. *Journal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ociety*, 27, 63-78.
- Koh, Naeun, & Shin, Jeong-Ah. (2017). A comparison of the level of difficulty in the English reading part of the CSAT: Before and after the EBS-CSAT linkage policy. *Secondary English Education*, 10(4), 3-24.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 March 16). *Announcement of the basic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Press release].
- Lee, Byeong Cheon. (2013).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the CSAT categorization framework with a focus on item analysis. *Modern English Education*, 14(1), 267-296.
- Liu, J., & Xiao, L. (2022).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conclusions in research articles: Variation across disciplin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67, 46-61.
- Moon, Ji-Hyun, & Kim, Hae-Dong. (2017). An analysis of the linguistic elements of the text in the English reading section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Modern English Education*, 18(1), 193-211.
- Nini, A. (2019).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tagger. In T. B. Sardinha & M. V. Pinto (Eds.), *Multi-dimensional analysis: Research methods and current issues* (pp. 67-94). Bloomsbury Academic.
- Park, Kwanghyun, & Hwang, Eunkyung. (2019). A multi-dimensional factor analysis of pre-university students' argumentative essays. *Modern English Education*, 20(3), 129-138.
- Park, Kwanghyun, & Kim, Eun-Ju. (2016).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Korean college English learners' speech transcript.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0(3), 25-52.
- Park, Kwanghyun, & Kim, Eun-Ju. (2019). A study of university English learners' oral presentation with multi-dimensional analysis: Focusing on informative and persuasive presentation.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3(3), 1-26.
- R Core Team (2021).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4.1.2) [Computer softwar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 Sardinha, T. B., Pinto, M. V., Mayer, C., Zuppari, M. C., & Kauffmann, C. H. (2019). Adding registers to a previous multi-dimensional analysis. In T. B. Sardinha & M. V. Pinto (Eds.), *Multi-dimensional analysis: Research methods and current issues* (pp. 165-186). Bloomsbury Academic.
- Shin, Yousun. (2019). Analyzing CSAT reading passages by using Coh-Metrix and VocaProfile: Focusing on four years from 2016 to 2019.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6(4), 109-127.
- Toutanova, K., Klein, D., Manning, C. D., & Singer, Y. (2003). Feature-rich part-of-speech tagging with a cyclic dependency network. In M. Hearst & M. Ostendorf (Eds.), *Proceedings of the 2003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on Human Language Technology* (Vol. 1, pp. 173-180).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Yoon, Hyunsook. (2012).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oral registers in revised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4), 777-799.

APPENDIX
 Genres in Biber's (1988, 1989) Corpora

Corpora	Genres	Number of texts
Written	Press reportage	44
	Editorials	27
	Press reviews	17
	Religion	17
	Skills and hobbies	14
	Popular lore	14
	Biographies	14
	Official documents	14
	Academic prose	80
	General fiction	29
	Mystery fiction	13
	Science fiction	6
	Adventure fiction	13
	Romantic fiction	13
	Humor	9
	Collection of letters	Personal letters
Professional letters		10
Spoken	Face-to-face conversation	44
	Telephone conversation	27
	Public conversations, debates, and interviews	22
	Broadcast	18
	Spontaneous speeches	16
	Planned speeches	14
Total	23	481